

관광산업 뿌리째 흔들린다... 5성급 호텔도 휴업·휴직

코로나19 팬데믹에 '고객발길 뚝' 이달 객실 점유율 10~20% 불과
지난달 중순 예약취소 5만건 넘어
277개업체, 융자금 상환유예 신청
호텔업체만 193곳, 468억원 달해



위커킬 호텔앤리조트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구성원 2부제 근무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그랜드 위커킬 서울의 객실 영업에 한해 임시 휴무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고객 발길이 뚝 끊기며 중·소형 호텔뿐 아니라 유명 특급호텔마저 휘청이기 시작했다. 일부 5성급 호텔은 임시 휴업이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외 여행·비즈니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호텔 업계 휴업과 폐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최근 서울 주요 호텔들의 객실이 텅 비면서 '개점휴업'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객실 점유율(OCC)은 평소 60~70%에 달했지만, 이달 들어 10~20%에 머물고 있다. 롯데호텔은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예약 취소 건수가 5만 건을 넘었다. 최근에는 객실점유율이 평균 20~

30% 정도이고 주 중에는 10%까지 떨어진다.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지난 1월만 해도 주말에는 '호강스족'으로 '만실'에 가까운 투숙률을 기록했던 것과 극을 달리는 상황이다.

날로 높아지는 공실률로 수익이 바닥을 기면서 호텔업계 경영자가 커지고 있다. 대면 서비스가 핵심인 호텔업은 업계 특성상 고용인원이 많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융자 상환할 여력도 부족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신청한 277개 업체의 상환유예를 결정했다. 이 중 호텔업체가 193개로 전체 상환유예 금액 561억 원의 83.5%인 468억 원을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주3일 근무제, 유급휴직, 무급휴가까지 동원하며 위기 타개에 나섰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이런 지원도 업계의 줄도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호텔들이 사실상 개점휴업을 하다 결국 임시 휴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라

운파크호텔 명동과 호텔 스카이파크 명동 1~3호점, 스타즈호텔 명동 2호점, 라마다 동대문 등이 최근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주 고객이었던 이들 호텔은 길게는 다음 달 말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인 트립닷컴도 지난달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상품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국내 호텔이 100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5성급 호텔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대형 특급호텔도 휴업이나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 특급호텔은 통상 OCC가 60~70%를 유지해야 수익을 내는데 사실상 신규예약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주주총회에서 "유통·관광 산업이 생존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한 바도 이 같은 업계현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위커킬 호텔앤리조트는 그랜드 위커킬 서울을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한 달간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5성급 특급호텔의 영업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경주에 있는 5성급 호텔 경주 힐튼도 이달 2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호텔은 이달 19일부터 객실 운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내 최대 호텔체인 롯데호텔도 이달 초 프리미엄급 호텔인 이그제 큐티브 타워의 임시 휴업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호텔은 지난달 임원 급여를 3개월간 10% 반납기로 결정한 데 이어 호텔업계 최초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4월 한 달 동안엔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시행한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도 한 달 동안 2개 조로 나눠 유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호텔신라도 이달 초부터 자율적 무급휴직을 시행 중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긴커녕 전 세계적으로 악화하면서 특급호텔마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형 호텔뿐 아니라 대형호텔도 유급휴직 등 비용절감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위커킬 호텔의 결정은 동급 호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제 휴업은 호텔업계의 일상이자. 일단은 고육지책으로 버티고 있지만 머지않아 폐업하는 호텔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자원 선순환 확립 '폐지공급 과잉' 해소를

환경부, 국내배출 폐지 재활용 독려
제지업계, 수입 줄이고 국산 늘리기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폐지 공급 과잉 문제가 정부와 제지업계의 조치로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가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지 재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선데 이어 제지업계도 폐지 수입 축소, 재생펄프 생산 수출 등을 통해 국산 폐지 수요를 늘리기로 하면서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종이 분리배출 강화, 종이컵 등 1회용 제품 소비 축소, 폐지를 재활용한 신제품 개발 등 이차 자원 선순환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중장기 해법 마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지연합회는 폐지 수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국산 폐골판지 등 폐지를 활용해 재생펄프를 생산,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지 과잉공급 현상을 점차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폐지는 폐골판지, 고급

폐지, 폐신문지, 혼합폐지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폐지의 주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지난 2018년 1월부터 중국 수출길이 막혔다.

게다가 공산품, 열대과일 등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포장재 유입이 크게 늘었고, 여기에 연간 120만톤(t)이 넘는 종이류가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폐지 공급이 국내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에 달했다.

이에 따라 폐지(상급)의 t당 거래가격이 2018년 4월 당시 240달러에서 올해 2월에는 160달러 수준까지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1kg당 80원 선이던 국내 폐골판지(압축장 매입기준)는 현재 60원대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국산 폐지가 공급 과잉 상태에,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제지업계의 폐지 수입은 계속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당시 폐지 순수입량(수입량-수출량)은 81만4016t에서 지난해엔 106만9408t으로 오히려 늘었다. 택배 등의 폭발적 증가로 골판을 만드는 폐골판지와 이물질이 섞인

혼합폐지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폐지 재활용률은 86%로 세계에서 1위다. 폐지를 많이 재활용한다는 것은 섬유질이 약해 품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다. 제지회사들이 물류비 등 좀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외에서 폐지를 꾸준히 수입해왔던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이 심화되자 환경부가 나서 업계에 국산 폐지를 선매입해 비축할 것을 독려했고, 이물질 함유 여부 등 수입폐지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서는 등 '외국산 폐지 공급 축소·국산 폐지 수요 확대'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 2월 당시 제지사 6곳이 국산 폐골판지 2만t을 선매입해 비축해놓기도 했다.

한국제지연합회 관계자는 "국산폐지를 활용한 재생펄프는 중간재로, 이를 수출해도 업체 입장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지만 국산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N번방 사건, 한 인간의 삶 파괴 잔인한 행위"

文 대통령 "철저수사로 가해자 엄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들을 엄벌해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를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청원게시판 'N번방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 게시글에 300만명 이상 국민들이 서명한 점에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

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N번방 사건 조사에) 필요하다면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경찰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의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의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중진공,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내달 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370개사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관련 사업 수행기관은 중진공을 비롯해 코트라, 세계한인무역협회(OKTA)로 선택 폭도 넓어졌다.

중진공은 해외민간네트워크와 함께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현지 유통망 진출 ▲기술제휴 ▲법인설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